

류, 버르던 가을잔치 너무 긴장했나

포스트시즌 출격 3이닝 4실점 최악 투구... 타석에선 희생플라이 1타점

다저스 도우미들 화력 폭발 애틀랜타 13대6 대파... 챔피언십 진출 눈앞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마음 속에 별려온 미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출격했으나 최악의 투구로 쓸쓸히 마운드를 떠났다.

류현진은 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서 한국인 빅리거로는 처음으로 선발 등판했으나 3이닝만 던지고 3회말 타석에서 대타 마이클 영으로 교체됐다.

류현진은 이날 3이닝 동안 안타 6개, 볼넷 1개를 허용하고 4실점해 평균자책점 12.00

이라는 기대이하의 내용을 남겼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30차례 선발 등판해 22차례나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63자책점 이내 투구)를 펼친 류현진이 5회도 못 넘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매팅리 감독은 비랑글 승부에서 감심장을 보인 류현진을 믿고 디비전시리즈 3선발이라는 중책을 맡겼으나 류현진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직구 구속은 150km까지 찍혔으나 볼 끝은 밋밋했다. 타자 무릎을 파고드는 갑날 제구가 실종되면서 류현진은 1회와 3회 애틀랜타 상위 타순을 맞아 고전했다.

3회 무사 1,2루에서 4번 타자 애번 게티스와 무려 11구까지 가는 혈전을 벌이는 등 류현진은 저스틴 업튼, 프레디 프리먼, 게티스, 브라이언 매켄 등 애틀랜타 중심 타자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3회까지 공을 68개나 던졌다.

4년 만에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에 올라 1988년 이후 25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 다저스는 타선 폭발로 애틀랜타를 13-6으로 대파했다. 원정에서 1승씩 나눠 가진 뒤 홈으로 돌아온 다저스는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더하면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다. 다저스는 8일 같은 장소에서 4차전을 치른다.

다음은 류현진과 일본일담.

-어제부터 몸이 아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부진 원인은 뭔가.

▲아픈 데는 없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고 유리한 볼카운트에서 신경을 좀 쏘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월드시리즈 클래식과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서 뭘 경험히 있는데 오늘과 비교해서 긴장감이 어땠나.

▲그때보다 오늘 더 긴장했다. 홈에서 열린 경기인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팀이 이겨서 다행이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잘 던지겠다.

-오늘 경기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자면.

▲안 좋게 보이는 플레이는 다 보여준 것 같다. 그래서 얼굴 표정에 다 나왔다. 절대 나와선 안 될 플레이가 나왔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

연습뉴스



LAD다저스 류현진이 7일(한국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 2회말 첫 타석에서 희생 플라이를 때려 첫 티점을 올린후 동료들과 하이 파이브를 하고 있다.

연습뉴스

‘늦깎이’ 빅리거 임창용 귀국

“메이저 타자들 상대 할 만 하다”

서른 중반이 넘어 올 시즌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늦깎이’ 빅리거 임창용(37·시카고 컵스)이 메이저리그 타자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내년 시즌을 기약했다.

임창용은 짧은 첫 시즌을 마감하고 7일 이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임창용은 자신의 첫 시즌에 대해 “주로 패전 처리로 마운드에 올라갔기에 올해 성적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며 “재활이 잘됐는지 테스트하고 메이저리그 타자를 분석할 겸 등판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힘이 좋다는 거 빼고는 메이저리그 타자라고 특별한 건 없었다”며 “몸만

100% 돌아온다면 빅리그 타자들도 해볼 만한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임창용은 올 시즌 6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6개, 볼넷 7개를 주고 3실점 해 승·패·세이브 없이 평균자책점 5.40으로 첫 시즌을 끝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가족 친지와 함께 자발 예정이라는 임창용은 11월부터는 다시 재활에 들어가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

올 시즌 자신의 80%만 보여줬다는 임창용은 “올 겨울 재활을 잘해서 100% 실력을 되찾는다면 내년에는 마무리 자리를 맡고 싶다”며 “풀타임으로 한 시즌을 뛰어서 1년 성적을 받아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힌다.

연습뉴스

수창초교 ‘홈런쇼’… KIA 타이거즈기 우승

수창초가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분양구장에서 끝난 제 10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 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수창초가 서림초를 8-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수창초는 이번 대회 준결승에서 12개의 홈런으로 21점을 만들어내는 등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편 광주, 전남·북지역 야구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17개 초등 학교가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벌였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허진(수창초) ▲우수투수상=김동은(수창초) ▲타격상=이현우(0.777·학강초) ▲최다 안타상=전광진(10개·수창초) ▲최다 홈런상=정성모(수창초·8개) ▲최다 도루상=김건우(5개·서림초) ▲최다 타점상=정성모(14타점·수창초) ▲수훈상=강민석(수창초) ▲감독상=장윤식(서림초) ▲미기상=김현창(학강초) ▲감독상=류창희(수창초) ▲공로상=정성제(수창초 교장) ▲지도상=노경희(수창초 부장) ▲심판상=정문진(광주 야구협회)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도마의 신’ 양학선 세계 선수권 2연패

유옥렬 이후 21년만에 ‘금자탑’

‘도마의 신’ 양학선(21·한체대)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2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양학선은 6일(이하 한국시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44회 기계체조 세계 선수권대회 도마 종목별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5.533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땀다.

2011년 일본 도쿄 세계선수권에서도 도마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학선은 이로써 1991년~1992년 도마 종목을 2연패 한 유옥렬 이후 한국 선수로는 21년만에 세계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한국 선수가 이 대회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유옥렬(도마 2개), 1999년 이주형(평행봉), 2007년 김대은(평행봉), 2011년 양학선(도마)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양학선은 예선에서 ‘여 2’(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두 바퀴 반 비틀기)와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 비틀기)로 평균 15.299점을 받아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올랐다.

이날 1차 시기에서는 난도 6.4점짜리 고유 기술 ‘양학선(도마를 정면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으로 15.733점을 받아 경쟁자들을 제압했다.

2차 시기에서는 신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됐으나 안전하게 ‘쓰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은 뒤 세 바퀴를 비트는 기술, 난도 6.0점)을 시도해 깔끔히 성공하며 15.333점을 받아 여유 있게 정상에 올랐다.

쓰카하라 트리플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 ‘양학선 2’의 시연은 미뤄졌다. 공식 등재도 기술을 선보일 때까지 기다리게 됐다.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북한의 리세광이 예선에서 탈락한 데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진 것이 신기술 도전을 미루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대원 대한체조협회 전무는 “만약 올해 코리안 게임이 열린다면 그때 신기술을 펼칠 예정이고, 열리지 않는다면 리세광과 또다시 맞붙게 되는 내년 아시안게임 때 신기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습뉴스



KIA 의 몰락 ... 2013 프로야구 결산

막내 NC에도 뒤처진 8위 수모

상 이름값 못한 선동열 감독 리더십

실망스런 선수 운용

공·수·주 경기력 엉망진창

지키지못한 약속 팬들 부글부글

베테랑 이종범 빈자리

젊은 패기도 찾아볼수 없어

팀 컬러 실종 예견된 추락



지켜지지 못한 약속에 KIA 타이거즈에 대한 팬들의 눈총이 따갑다.

출범 첫째 아쉽게 4강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선동열호’는 올 시즌 신생팀 NC에게까지 밀리며 8위로 추락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추락과정에서의 모습은 타이거즈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선동열 감독의 지키지 못한 약속. 냉정한 평가를 통한 반성과 회상 찾기가 이번 가을의 숙제다.

◇야구는 ‘희생본트’

1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던 2011년, 선동열 감독은 부임 소감에서 ‘희생본트’를 언급했다. 개인을 떠나 타이거즈라는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을 만들겠다는 얘기였다.

희생본트의 동력으로 ‘베테랑’이 얘기됐다. “감독 코치가 인솔하기보다는 베테랑이 나서서 하는 팀이 좋은 만큼 베테랑 선수들과 어떻게 하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맞춰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KIA의 ‘희생본트’는 없었다. 임지가 좁아진 이종범이 2012시즌 출발에 앞서 은퇴를 선언하면서 출발부터 빼격됐다. 기대와 달리 젊은 선수들이 이종범의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서 은퇴과정에서 나온 초반 짐은 더 크게 느껴졌다.

올 시즌에도 베테랑의 역할은 미미했다. 부진과 성적 추락 속에 베테랑들의 자리는 축소됐다. 위상이 떨어진 베테랑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경험 부족’의 선수단은 위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도 기대할 수 없었다.

성적 하락 속 코칭스태프의 불화까지 불거지는 등 선수단을 우승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끌어가지 못하면서 시즌 종료와 함께 ‘선동열호’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2년 차의 LG 김기태 감독과 초보 넥센 염경엽 감독이 베테랑을 중심으로 한 ‘황금 리더십’으로 자율적이지만 규율적으로 선수단을 이끌던 모습이 더 아프게 느껴진 KIA의 실재였다.

◇팀컬러에 맞는 패턴 변화

선 감독을 대표하는 야구는 ‘지키는 야구’다. 삼성 사령탑 시절 탄탄한 불펜진을 바탕으로 한 ‘지키는 야구’로 우승 감독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불펜 중심의 정적인 야구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도 있었다.



선 감독은 고향에 돌아오면서 기존의 야구에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화끈한 공격’ 야구의 대표 팀으로 통했던 타이거즈에 맞도록 패턴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특유의 팀컬러를 만들어지지 못했다. 지난 시즌 예고와 다른 스몰 야구를 펼쳤던 선 감독은 올 시즌 초반 쉬어갈 곳 없는 타순으로 폭발적인 팀 컬러를 만드는 것 같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김주찬에 이어 김원섭이 수출대에 오르는 등 막강 외야가

황무지가 됐고, 기대했던 안치홍·김주형 등의 부족했던 활약으로 ‘공격 야구’에 제동이 걸렸다. 송은범·신승현을 영입하면서 ‘지키는 야구’에 대한 시도도 이뤄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시즌 준비가 부족했던 송은범의 계속된 실패와 신승현 투입의 엇박자로 마운드가 서서히 무너지면서 무색무취의 야구가 되고 말았다. ‘전통’을 살린 포기하지 않는 화끈한 야구는 이번 시즌에도 숙제로 남았다.

◇목표는 우승이다.

선 감독은 이번 시즌 미디어 데이에서 “일 한번 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우승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 전력도 좋고 목표도 우승이다”고 목표를 밝혔고 선수들도 우승을 내다보며 자신감을 보였다. ‘FA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감의 한 축이었다. 새로 영입된 대이 김주찬과 함께 에이스 윤석민 토퍼타 아용규가 FA를 앞두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큰 전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선 감독이 마지못해 전력으로 꼽았던 ‘부상’이 팀의 우승 행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선 감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도 둘째도 부상이다”고 부상을 강조했다. 부상 릴레이는 올 시즌도 피할 수 없었다. 행복한 고민의 중심지였던 외야가 김주찬의 부상을 시작으로 한파에 휩쓸렸다. 소사만이 유일하게 로테이션을 소화하는 등 마운드에도 크고 작은 부상이 찾아왔다.

소홀했던 유망주 육성으로 얹어진 선수층. 결국 부상의 공백은 다른 팀보다 더 크게 느껴졌고 남아있던 주축 선수들도 과부하가 걸리면서 다시 부상이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부상이라는 변수로 인해 약화된 전력을 채울 수 있는 상대에 따른 맞춤형 공략과 다양한 작전도 ‘부상’이었다.

‘부상도 실력’이라는 선수들의 프로 정신도 꼬집을 수 있다. 성적 하락에 따른 경직된 덕아웃 분위기. 그 분위기를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선수들의 의지와 실력이 한참 미달이었다. 많은 선수층에 따른 경쟁 체제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아찔한 추락이었다.

선 감독은 “초반 기대를 많이 하셨던 만큼 실망도 크셨을 거다.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추억이 있는 구장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끝을 내는 게 개인적으로도 섭섭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많은 숙제를 남기고 막을 내린 2013시즌.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KIA의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